

당원-되기 step4. 내 꿈은 선거왕  
- 선거에 임하는 우리들의 자세

일시: 2015년 4월 11일 토요일 16시

장소: 영등포 노동당 당사

연사: 구로구의원 김희서

주최: 음기양조

속기: 이춘희

<강연 시작>

안녕하세요. 아니, 분위기도 좋고, 울동도 잘 하시고(몸치패 두둑치). 훌륭하신 것 같습니다. 노동당의 젊은 당원들이 이렇게 해주시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저도 포스터 보고 깜짝 놀랐는데, 포스터 제목이 ‘내 꿈은 선거왕’ 이거예요. 근데 저는 선거왕도 아니고요. 선거를 특출나게 잘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근데 오늘 선거 관련해서, 우리가 정당을 하는데 선거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편하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 대단한 얘기가 나올 거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요.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 무슨 얘기를 기대하고 오셨는지. (저 분은 그냥 술 마시러 왔어요) 아, 집회 가고 술 마시러? 혹시 뭐 생각하고 오셨어요? 이런 얘길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 왜 선거를 열심히 해야 하는가, 그런 얘기가 나올 거다? (당 차원에서 지역선거나 총선 총출동 하는데 이번 일도 그렇고 우리는 왜 항상 이런 것인가... 선거에 당선된 사람을 이렇게 직접 볼 수 있는 자리에서 얘길 들어보고 싶었다) 또 이런 얘기 들었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하고 오신 분? (김희서 의원은 어떻게 자신이 당선될 수 있었는지, 자신의 당선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지난 지방선거 때 낙선하신 황종섭 선거운동을 했는데.) 간발의 차로 낙선하셨죠? (그건 아니고.) 아니 그래도 말은 그랬다고 해야죠. 또 다른 분, 없으세요? 편하게 말을 터야 얘기가 되니까요. 강의 하고 데이터를 보여주고 하진 않을 거라서요. 혹시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선견데, 우리가 진보정당이니까 진보정당이 아닌 정당들과 좀 다른 방식. 과정 자체도 의미 있고, 뭔가 다르고, 이런 것들에 대한 특별한 노하우나, 그런 거에 대해 기대할 수 있겠다 생각도 좀 했고요.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특별한 길이 없어요. 재미 삼아 얘기하는 건데, 제가 뭐 학벌철폐도 생각하고 있고 한데, 혹시 여기 서울대 학생이거나 졸업하신 분 계세요 여기? 없어요? 그러면 주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서울대 수석 한 사람들 인터뷰 하면 주로 하는 얘기가 뭐예요? 교과서 위주로, 국영수 중심, 잠은 8시간씩 꼭 자기. 이런 얘기 듣고 있으면 열 받죠. 그죠? 그거랑 좀 비슷한 걸 수도 있어요. 선거도 마찬가지로 공직선거를 중심으로 얘기를 할건데, 유권자에게 선택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직에 참여해서 주요 정책이나 그런 걸 결정해가는 공직자로서 일을 해가는 거잖아요. 그 과정은 무리하게 예를 들었지만, 그거랑 좀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할 거고요.

우리 젊은 당원들이라고 해야 하나요? 뭐라고 해야 해요, 청년당원들? 사람들? 당원들. 아,

젊은 벗들 좋다. 강상구를 믿지 않는 젊은 벗들, 맞죠? 김종철을 믿지 않는 젊은 벗들... 이분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로 평소에 당원으로서 모여서 하는 활동들 뭐하세요? 술 먹고, 정치나 투쟁에 관련된 얘기도 하고. 같이 집회에 결합도 하시고. 근데 저는 여기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평소 하는 활동들과 선거의 차이가 뭘까부터 먼저 얘기를 하고 싶고요. 솔직히 그런 생각 안 들어봤어요? 아무리 정당이지만 선거 꼭 해야 하나? 세상을 바꾸는 게 선거 없이도 가능하지 않아? 자기는 굳이 선거 말고도 다른 일들이 있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말씀해주세요. 얘기하기까진 어렵고, 느낌적 느낌으로... 저도 스무 살 때는 선거 별로 참여할 생각도 없었고, 선거 어차피 그거 권력을 가진 사람들, 자본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것 유지하기 위해 하는 요식행위 굳이 참여 해야 하나 했었어요. 그래서 투표하러 가면 투표용지에 도장 안 찍고 거기다가 비정규직 철폐 이런 거 써가지고 집어넣기도 하고. 뭐 이런 식의 활동들... 선거가 오히려 우리 운동이나 세상을 바꾸는 과정에 장막 같은 걸 만든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생각이 조금씩 바뀌어왔죠. 정당이라는 것을 만들고, 참에 활동할 때는 정당 없었거든요. 이런 과정을 보면서 생각들이 바뀌어왔어요.

선거를 꼭 해야 하는가에 관해서 저는, 지금은 정당이고,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사람들은 꼭 선거를 해야 한다 하는 생각과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정책을 결정하는 위치, 잘못된 정치가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것도 필요하다 그 모든 사람이 그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우리 진보정당에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적고 부족하다, 그래서 선거를 통해서 당선이 많이 되고 들어가는 것이 사회 진보에 큰 역할과 기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활동, 즐거우니까 하잖아요. 선거도 마찬가지예요. 선거를 하겠다는 생각이 들면 즐겁게 선거에도 좀 참여하고 이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오늘 나온 얘기 중에서 새로운 얘기는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을 좀 열고 들으면 본인이 이제까지 생각해왔던 거랑 좀 다르다, 하는 측면도 있을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2010년 출마의 변이라고 했는데, 이걸 써놓은 이유는 뭐냐면, 제가 2010년도에 32살에 출마를 했는데, 그 때 출마했던 이유는 쉽게 말하면 당의 요청? 요구? 명령이라고 그러면 너무 딱딱하고... 당의 부름? 이런 걸로 출마를 했었어요. 저는 지역에서 지역 활동도 하고 당의 상근자도 하고 이런 활동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이제 2000년대 중반부터 해서 민주노동당 이렇게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지역에서도 그렇고 정책 결정하는 위치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게 필요하다 하는 인식들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면서 저도 아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구나, 비교적 젊은 활동 당원이니까, 그러면 선거에 좀 나서면 된다는 생각을 해서... 평소에 집회 나가는 것처럼, 동네에서 현수막 걸고 홍보 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선거도 그냥 그런 것의 일환으로 출마를 했었어요.

출마를 하고 선거를 만나고 치러보니까 아 내가, 정말 모르는 게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한 거죠. 선거도 쉽게 보고 여러 가지 활동 중의 하나로 봤는데 선거는 쉽게만 볼 건 아니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단적으로 어차피 선거도 사람을 만나는 거잖아요. 사람을 만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심이죠, 진심. 진심을 다해서 만나면 그 사람도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선거에서도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요. 그 중에서는 진보의 가치에 동의를 해주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진보의 진자만 나와도 거품 무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만나는지를 본능적으로든 안다는 얘기에요.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난 사회주의자고, 사회주의자는 세상을 변혁하고 바꿔야 하는데, 근데 여기에 동의해주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 보니까 동네에서 조기축구도 하고 배드민턴도 하고 그런 데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살짝 숨기고 만나러 갔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 이 분들이 마음을 별로 안 여는 것 같은 거예요. 느낌상. 왜 그러지?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그거는 제가 먼저 마음을 안 여니까. 목적을 가지고 만나니까. 투표행위로 연결시키려는 목적 하에서 만나니까. 본능적으로 그걸 느끼는 거죠. 그래서 젊은 사람이 왔다 갔다하고 인사도 하고 하는데 진짜 나와 같이 있어줄, 고민해주고 해결해줄 사람이라고 느끼지 않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그걸 느끼게 하루 있지? 생각을 한 거죠. 내가 정말 이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고 같이 있다는 걸 진실로 보여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도 나를 그렇게 대하겠구나, 생각했어요.

선거도 사람을 만나는 과정이고, 진심을 다해서 만나면 이 사람들도 어쨌든 대답을 해주거든요. ‘니가 아무리 진심을 가지고 와도 난 너 싫어.’ ‘니가 가진 생각이나 이런 게 도저히 동의가 안 돼.’ 이렇게라도 대답을 해주거든요. 거기까지라도 갈 수 있는 과정이 많이 필요한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선거란 무엇인가, 제가 말씀 드렸죠. 공직선거에서 당선을 통해서 공직자가 되고, 그 권한으로 정책과 가치들을 실현하고자 하는 게임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 글자를 통해서 보시면 선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 게임인 거예요. 당선을 통해야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예전에 이런 논쟁이 있었어요. 선거를 꼭 당선으로만 접근해야 하느냐. 소수정당이나 진보정당에 이런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게 목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선거란 주어진 법적 공간에서 우리의 내용을 알리는 거지. 대통령 선거에 나가서 우리는 이렇게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라는 걸 알리는 것. 저도 이것도 충분히 가능하고 오히려 더 높은 때로는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기도 했고요.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거 되게 비효율적인 거 같아요. 선거에는 돈도 들어가고, 엄청난 노력도 들어가고… 근데 굳이 내 것을 알리는 방식을 선거라는 제도에 굳이 참여해가지고 몸 힘들고 돈 들고 하면서 굳이 할 필요 있냐. 저는 지금은 그렇지 않은 거 같아요. 선거는 분명하게 당선을 통해서 목표를 달성하고 그걸 통해서 가치를 실현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선이 가장 중요한 요소다. 물론 떨어지는 걸 뻔히 알면서도 나가는 선거가 있어요. 저는 최소한 다음 선거를 바라본다든가 다다음이라도 당선을 바라본다든가.. 그래서 당선을 통해서 정책적 가치를 실현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진보진영 내에는 이런 거에 인식차이가 커요. 당선이 중요해? 진보정당이 굳이 뭐 의원 하나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할 수 있어… 뭐 그런 생각이, 제가 보기에는 보수정당과 우리의 결정적인 차이다, 선거를 못 이기는… 선거를 안 이겨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반드시 이겨서 들어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못 이겨요. 우리는 이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좀 있어요. 선거 얘기만 너무 많이 하면 우경화됐다고 한다든가, 의회주의에 경도됐어, 이런 얘기 듣고 하는데, 민주당이나 새누리당에서 나오는 분들은 당선을 통해서 정책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기업가들이나 재벌들에게 더 유익한 조건을 만들어주려고 하는 거고, 노동자들을 억압하고 이 사람들을 짜내서 부라든가 이런 것을 편중시키려고 하는 정책적 가치를 실현시키려는 목표를 가지고 출마를 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런 방향으로 반드시 당선되겠다고 해서 나와서 작전도 쓰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당해서 싸우는 쪽은 되면 되고, 안 돼도 판 방법 쓰면 되고 해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우리가 지는 이유는 거기에 있다. 저는 일단 이렇게 생각합니다. 굳이 이기려고 하는 마음과 간절함이 덜 하기 때문이다.

이거는 일반적인 선거 얘기를 할 때 교과서같이 하는 얘기에요. 흔히 선거는 첫 번째가 구도라고 하고, 여기에는 정당도 포함이 돼요. 선거할 때 가장 기준으로 삼는 게 어떤 거예요? 정책? 정당? 사람보고 찍는다는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그거 거짓말이에요. 사람보고 안 찍어요. 구도가 이미 7-80%를 좌우해요. 당선이나 낙선이나. 그 속에 정당이나 정책 이런 것들이 연관이 있는 거고요. 인물은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지난번에 지방선거 때 보면 각자들 동네에 서울시의원들 누구이신지 기억나거나 이러세요?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이 사람들 어떻게 찍냐면, 박원순이 이번에 서울시장이 됐으면 좋겠어, 박원순 찍으면서 서울시의원까지는 그래 박원순 쪽 찍었으니까 민주당 2번 찍어주고요, 구의원에서는 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워낙 좀 많으니까, 사람들이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구청장 선거 시장선거 까지는 자기가 대부분 유권자들이 그 사람을 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을 하죠. 정당을 기준으로 하든 인물을 보든... 시의원이나 구의원 같은 경우에는 판단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주로 한 번이라도 본 사람. 내가 판단할 근거가 있는 사람. 나랑 같은 학교 나왔네? 나랑 같은 아파트 산다 뭐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심지어 90년대 초반인가 지방자치제도가 처음 부활했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는, 그게 너무 기억에 남는데, 우리 아버지도 훌륭한 나름대로 좀 정치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었거든요, 근데, 구의원은 그 때 당시에 도저히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후보 중에 김종식이라는 후보가 있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성함이 김 종자 식자해서 똑같거든요. 어이쿠 너나 돼라, 그러면서 찍는 경우... 진짜로.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서 굉장히 큰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잠시 후에 기초의회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할 건데 진보정당은 이를 통해 성장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할 것인데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요.

구도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DJ가 당선될 때 가장 큰 역할을 한 건 김대중이 많이 대선에 나왔어서, 정책이 좋아서가 아니었어요. 이인제가 제3후보였기 때문이었어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인제가 경상도를 중심으로 표를 10% 이상을 얻었어요. 다 이회창을 지지했을 표가 갈라진 거죠. 그리고 DJ도 그 때는 충청도에 기반을 둔 JP하고 연합을 했었고. 총리직 등을 담보로. 그런 구도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30%대의 지지를 받고도 당선이 되었던 거죠. 최근 대선에서 문재인은 1400만표인가 하는 역대 야당 최고 득표를 받았고 그걸 지금도 자랑해요. 그런데 선거를 아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바보같은 소리죠. 1:1의 구도였기 때문에 지던 이기던 최고의 기록을 세울 수 밖에 없었죠.

황종섭 후보 같은 경우는 원래 질 수 밖에 없는 선거였죠. 2인 선거구였는데, 지금 상황에서

새누리와 민주당 보수양당 체제를 깨고 제3당이 당선된 경우가 없어요. 의정활동을 열심히 했던 나경채 후보도 심지어 현역의원이었는에도 구도가 안되니까 떨어진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어떻게 되었나를 보면 당시 새누리당이 후보가 갈라졌어요. 2인 선거구인데 후보를 2명 냈어요. 그런 구도가 선거에서 중요하다고 봐요.

진보정당을 위해 당선되어서 훌륭한 정치인이 되려면 구도가 나오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내가 초중고를 여기서 나왔다. 그러더라도 구도가 지금 내 조건으로 뚫을 수 없는 곳이라고 하면 옮겨야 해요. 구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스토리입니다. 스토리가 중요해요. 노무현은 스토리가 있잖아요.

\* 예찬: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인권변호사로 활동하시면서 약자의 편에 서셨고, 심지어 정계 입문 후에는 5공 청문회에서 명패를 집어던진 정의의 정치인이었고,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서 부산 지역에서 출마도 했던...

그런 스토리가 필요해요. 김대중도 스토리가 있죠. 민주화 운동을 이끌면서 다리를 절 정도로 고문을 받으면서도 민주화를 이끌어 낸 사람이고, 국민을 잘 이끌어줄 것 같았던 거죠. 대통령 후보니까 우리가 스토리를 잘 안다고 합시다. 그러면 지역에 나왔던 사람 중 이 사람만은 기억난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황종섭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데... 주민들은 모르죠.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스토리를 만들어야겠죠. 약간 부풀려서라도. 그런데 이것도 뭐 황종섭이 서울대를 나왔으니까. 우리 동네 서민의 자식인데 서울대를 나와서 우리 서민을 위해서 부귀영화를 포기하고... 물론 이게 진짜는 아니예요. 그런데도 서민 편에서, 철거 관련해서 싸우기도 하고... 젊고 촉망받는 사람의 스토리. 후배들의 혁신학교를 지켜주겠다는 스토리 좋죠. 근데 그게 이야기가 됐나요?

\* 세현: 명함에 찍어는 났는데...

스토리가 형성이 되어야 해요. 구도 다음에는 스토리. 어디 선거를 나가게 되면 내 스토리가 무엇인가, 난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잘 고민해보아야 합니다. 제가 노무현 이야기도 간단히 했는데, 노무현의 구도를 잠깐 이야기하면 김대중은 지역 구도를 짰다면 노무현은 세대 구도를 짰죠. 젊은 층은 괜히 노무현 지지해야 할 것만 같고, 당시 이회창이 노인 폼파 발언을 했고. 그러면 이게 대통령 같은 큰 선거뿐만 아니라 작은 선거에서도 만들어야 해요. 제가 당선된 건 솔직히 이야기하면 제 눈빛에 유권자가 빠져들고 그런 게 아니죠.

첫 번째 요인은 전 스토리가 좀 강하죠. 3인 선거구인데도 당선 안 된 데가 많아요. 물론 2인 선거구면 당연히 안되는 건데 3인 선거구였고, 민주당도 후보를 둘 내고, 새누리도 후보를 둘 냈어요. 그럼 3등으로 당선되어야 하는데, 가 후보들은 다 당선되고, 나를 제가 제껴야 하는거죠. 그런 걸 기반으로 전략을 짜죠.

그런 구도가 있어야 하고, 스토리가 있어야 하잖아요. 제 공보물 첫 장면은 큰 사진이 있었는데 4년 전 선거에서 낙선인사하는 사진이었어요. 2% 차이로 떨어졌을 때. 사람들이 보통 지

난 선거에서 진 사람 금방 잊어요. 그런데 저는 낙선했지만 계속 지역에서 뛰었고 공약을 제가 지키려고 노력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걸 크게 박아 넣으니까 사람들이 자기들이 다 본 것처럼 이야기하더라고요. 낙선 인사를 제가 선거 끝나고 1주일 정도를 역 앞에서 했어요. 떨어졌는데 인사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당선 된 거냐고 물어보고 지나가기도 하고. 그런 게 스토리가 되죠. 떨어졌는데도 지역을 위해 열심히 한 사람이라는. 카피나 스토리를 그렇게 잡았죠.

그리고 제가 외모나 이런 것에서 풍기는 이미지를 종합적으로 해서 제가 스마트함이나 정책적 날카로움 이런 걸로 승부를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서민의 천하장사라는 우직함, 부지런함, 같이 싸울 수 있고 힘이 될 수 있고 짐도 날라줄 것 같은 이미지로 스토리를 잡았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사람들이 그걸로 저를 인식하더라고요. 떨어졌는데도 다음 날부터 인사하고 활동을 해 온 애다. 한번은 당선을 시켜줘야겠다. 다 맘에 드는 건 아니지만...

어차피 새누리나 민주당 둘 중 하나는 되는데. 어차피 만나는 대부분의 지지자는 새누리나 민주당 지지자예요. 8% 정도를 제외하고는 다 그래요. 그런데 내가 애를 찍었다가 새누리나 민주당이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생각을 하는데 3인 선거구에서는 어차피 하나씩은 되니까 애를 찍어서 일꾼을 좀 키워보자 이런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 이야기한 건 구도가 중요하고, 스토리도 성공해야 한다. 사람들은 간단하게 기억해요. 애는 친서민적이고, 불의와 불평등을 해소하는 정책을 할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도움이 될 거야. 이렇게 투표 안 해요. 내가 김대중을 안 찍었지만 그래도 되어야하지 않을까? 내가 좀 개혁적이고 바꾸어 보고 싶는데 그럼 노무현 찍어야 하는거 아냐? 구의원 한명쯤은 새누리 민주 말고 젊은 튀는 애 있어야 하는 거 아냐? 이렇게 간단하게 이미지로 투표해요.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이걸 열심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 말에 제가 하고 싶은 모든 게 있었어요. 구의원은 3등까지 당선됩니다. 여러분이 안 찍어도 양당은 당선됩니다. 전 진심으로 합니다 절 찍어주세요 이런 말을 했어요.

두 번째로 진보정당에서 왜 선거를 해야하는가? 국민들의 평가 기준은 공직자예요. 노동당을 사람들이 모르는 이유는 그런 공직자가 없어서예요. 정의당을 좀 아는 이유는 노심이 있으니까예요. 그래서 전 국민들은 공직자를 보고 그 당의 성향, 정책 등을 판단해요. 그게 현실이에요.

두 번째는 의정활동이에요. 여영국 의원 등. 이 사람 한 명이 보여주는, 그리고 사회적으로 변화시키는 홍준표와 맞부딪히는 변화의 영향들을 보면 공직자가 되게 중요해요. 우리의 얼굴이에요. 우리 동네에서는 제가 하는 게 노동당에 대한 평가기준이 되죠. 술 먹고 돌아다니면 노동당은 술먹고 돌아다니한다고 소문나고. 공직자는 그 당의 얼굴인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모르는 건 간단해요. 공직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공직자를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의 행동이 가치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선거가 중요하다 이런 말입니다.

선거는 00이다. 를 준비했는데. 아까 구도와 스토리를 이야기했다. 사회과학적으로도 나오는

내용인데 인지도, 호감도, 조직화가 있어요.

첫째는 인지도예요. 우리가 선거가 안 되는 이유는 사회과학적으로 보면 첫째는 무조건 인지도가 없어서예요. 뭘 알아야 좋다 안 좋다 판단을 하죠. 모르면 아예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에 대해 예전에 김영삼이 한 이야기가 있어요. 정치인은 뭐로 듣지 언론에 나가는 게 좋다. 좋은 거든 나쁜 거든. 그만큼 인지도가 있어야 좋아할지 싫어할지를 판단해요.

두번째는 호감도예요. 좋아야 되는거죠. 마음에 들고. 인지도가 높는데 호감도가 낮다, 이러면 표가 안 나오죠. 그런데 이 호감도도 인지도가 기반에 있어야죠.

세번째는 날 알고 좋아해주는 사람이 많더라도 투표를 안 하면 꺾이죠. 선거에 기본적인 만났어야 하고 해야하는 흐름에서 중요한게 조직화예요. 이 이야기를 한 건 좀 이따가 더 이야기하고.

지금까지의 선거운동 반성이 필요하다. 무얼 해야 하나.

진보진당 선거의 역사도 간단히 볼 필요가 있다. 제가 제기하고 싶은 문제제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민중당. 백기완 선생님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때 김대중, 김영삼, 노태우, 이런 사람들 나올 때 민중의 정치세력화 하면서 알리는 선거도 많이 했죠. 선거는 투쟁이라는 인식도 강했고.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88년도 이럴 때 이야기고 흔히들 옛날이야기라고 할 때 쌍팔년도라고 하잖아요. 지금은 달리 생각해야 하는 거죠. 선거는 선거고 투쟁은 투쟁이다. 분리해야한다는게 아니라 다른 역할을 인식해야 한다고 봐요. 논쟁적인 내용일 수 있죠.

두번째는 민주노동당. 민노당 성장의 근거는 선거제도에 있습니다. 1인 2표제 비례대표 덕분이죠. 정당투표를 통해 민노당이 쭉 성장할 수 있었던 거죠.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리면 이것도 아직 논쟁거리인데 그때는 제가 강북구에 있었어요. 혹시 박용진 아세요? 제가 그 분이랑 같이 일했어요. 당시 위원장이었죠. 전 사무국장이었고. 이 때 뭐가 있었냐면 법적으로 보장된 유급사무원 있잖아요. 이걸 써야 되냐 말아야 되나로 논쟁이 확 붙었어요. 진보정당이면 당원이 자발적으로 해야지 어떻게 돈으로 사람을 쓰냐, 아무리 법이 그래도 이건 아니다. 진보정당 답지 못하다. 이런 사람들이 당시에는 압도적이었어요. 소위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면 NL은 좀 더 대중적 감수성이 있었죠. 그래서 선거에서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쓸 수 있는 걸 다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지만 대부분 안 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강북구에서 처음으로 유급사무원을 썼어요. 쓰니까 어떤 효과가 있냐면 아주머니들이 와요. 처음에는 돈 때문에 오죠. 어디서 받나 돈만 받으면 되니까. 1주일 정도 해보면 그분들이 상대편 아주머니들이랑 싸워요. 나중에 막 정책 자료집 같은 걸 내놓으라고 해요. 싸울려고. 자존심도 있으니까. 그래서 마지막에는 우리보다 더 선거에 대해 열정적이 되고 우리 후보에 헌신하는 케이스가 있는 거예요. 선거 지나고 나면 그분들이 입당도 하고요. 처음에는 돈 주고 사람 쓰는 개념으로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들이 우리를 확장시키고 더 조직도 하고 이런 계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가시게 되는데 보통 막 학부모회, 녹색어머니회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 시간에 선거가 14일정도 하는데 온전히 시간을 뺄 수 있단 건 평소에도 시간이 있다는 이야기죠. 나중에는 우리들의 이야기나 이런 걸 전달해주거나 같

이 싸우기도 하고. 세월호 같은 예가 있을 거고. 이런 이야기를 자연스레 아래부터 깔 수 있는 거죠. 정치적으로 소리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의 밑바닥에서 나누는 이야기에 그분들이 끼어드는거죠. 이런 걸 많이 볼 수 있었어요.

진보신당은 NL과 갈라졌을 때 구도 싸움의 문제가 있었죠. 우리가 진보 1당이 되기 위한 싸움이 있었죠. 잔류 민노당이나 진보신당이나. 냉정히 이야기하면 진보신당이 그 구도 싸움에서 졌어요. 객관적으로 봐야죠. 잔류 민노당이 진보의 말형이 되었죠.

노동당, 정의당 나오는데 김순자, 김소연, 이정희, 문재인... 이렇게 가면서 이런 것들이 있었죠. 또 도발적인 이야기 하자면 김순자, 김소연, 문재인 나왔을 때 저는 문재인 찍었어요. 당 지침이지만 당 지침을 어겨도 되는 지침이었어요. 권장사항이었으니까. 물론 논리적으로 당 지침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냐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여기 같이 문재인 찍은 분들 많으니까.

전 간단했어요. 김순자, 김소연을 놓고 고민하다 막판에 박근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건 MB보다 더 암울할 것 같다. 그래서 최소한 그거 막으려고 문재인을 찍었어요. 전 대선 투표하면서 처음으로 2번 찍어봤어요. 권영길, 권영길, 권영길... 그래서 처음이네요;; 당원 중에 이런 분들 많을 것 같아요. 확고하게 방향이 있었으면 달랐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여기 계신분들이 선거에 관심을 갖고 잘 치렀으면 좋겠는데 선거의 핵심이 뭐냐고 묻는다면 전 선거는 게임이라고 생각해요. 과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이건 게임이고, 게임은 이기기 위해서 하는거죠.

선거는 스토리다.

선거는 구도다.

선거는 사람이다.

선거는 50대 국졸 어머니다. 이건 다른 사람들도 많이 하는 이야기인데, 노동당이 지역에서 안 먹히는 건 선거에서 모든 워딩은 50대 국졸 어머니를 타겟으로 해야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쓰는 워딩은 그 분들에게는 어렵죠. 우리가 주장하는 바를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관심을 가질 수가 없죠. 우리의 내용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여기에 맞는 언어로 바꾸어야 해요.

박근혜 당선될 때 가장 많이 먹힌게 불쌍한 박근혜였어요. 정책적으로 어떻고 저렇고 이런 이야기해봐야 불쌍하나 아니냐가 중요했어요. 민주당은 독재자의 딸을 외쳤는데도 그런데도 불쌍하니까 된거죠. 그래서 50대 국졸 어머니의 기준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당내 선거는 합의된 바가 있으니 다르지만 공직 선거는 이렇다고 봅니다.

물론 결가지가 있어요. 타겟팅 해서 발언해야 할 것도 있을 거고. 혁신학교 같은 경우에는 30대 학부모가 타겟인거죠. 그런걸 빼고는 50대 국졸 어머니로 맞춰야 한다는 거예요. 선거는 여성을 타겟으로, 50대를 타겟으로, 언어도 그런 수준에 맞추어야 한다는 거예요.

선거는 마음을 얻는 것이다. 수단에 제한은 없다. 진보정당만익는 없어요. 모든 걸 다 동원해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 가치를 담아 전달해서 마음을 얻는 겁니다.



\* 해연 : 선거는 자리싸움이다.

그렇죠. 이겨서 의석을 차지해야죠.

\* 시형 : 선거는 이슈와 타이밍이다.

구도와 비슷한 이야기고, 이슈도 중요하죠.

인지도-호감도-조직화 이야기를 아까 했었는데 첨언하면 시험범위 안에서 공부를 해야 해요. 공부할때 훌륭한 사람은 시험 잘 보는 사람은 아니죠. 시험을 잘 봐야 합격을 하잖아요. 선거를 잘해야 당선이 되잖아요. 의석을 많이 얻는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시험범위 안에서 공부를 해야한다는 거죠. 그게 선거에 집중을 해서 선거의 범위 안에서 하는게 옳으나 그르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시험에 나오는 걸 반드시 공부해야 한다는 거죠.

시험범위라고 하는 건 투표를 찍어줄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날 찍어줄 사람이 누구고. 여기에 맞춰서 전략을 짜야한다는 겁니다.

합격하려고 공부해야 한다. 그래야 해요. 견문을 넓히는 공부는 시험을 볼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세상을 바꾸려는 활동도 좋아요. 그런데 뭐하러 선거를 하냐는 거죠. 선거를 하는 건 얻으려는 목표가 있어야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생각을 했으면 하는 거죠.

또 선거운동에 대한 우리의 반성이 필요해요. 진보-보수 떠나서 선거판에서 우리가 가장 게으릅니다. 확실히 권력의지, 당선에 대한 의지가 부족해요. 예복습 철저히 하고, 공부하면 시험 보듯, 운동하면 선거를 치른다고 생각하고.

엄마의 정보력도 필요합니다. 어디에 단체 모임이 있고, 어디가 사람이 많이 모이고.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모든 걸 걸어야 하는 거니까.

데릭 지터가 이런 말을 했는데 “노력에는 재능이 필요하지 않다.” 선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노력은 아무나 해요.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밀린다는 거예요. 박용진, 김문수를 이야기할 건데.

제가 박용진이랑 일을 했다고 했잖아요. 전 여전히 박용진을 존경하는 측면이 있어요. 물론 민주당으로 간 건 비판적이지만. 전 자신 있는게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선전전 하는 거예요. 그 습관이 강북구에서 활동을 할 때, 스물 몇 살이었는데 이라크 파병 문제가 터졌어요. 선전전하러 전 아침 6시에 시간을 맞춰서 나갔어요. 그런데 박용진이 먼저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졸업 후 바로 들어갔으니까 내가 박용진보다 잘 할 수 있는게 뭐있지? 생각했어요. 학습, 발언 등등 다 밀리는거예요. 나이도 6살 차이니까. 그런데 동등한 동지로서 저도 때론 비판도 하고 싶고 붙고 싶은데 뭐 하나 더 낫다고 이야기할 게 없으니까 끌리는거죠.

그래서 내가 좀 잠을 줄이더라도 이 사람보다 아침 선전전을 무조건 먼저 나가자. 이건 노력으로 되는거예요. 그래서 다음 날 10분 일찍 나갔어요. 그런데 먼저 나와있어요. 그래서 2~30분 먼저 나갔죠. 그랬더니 그게 몸에 밴거예요. 지금도 아침 선전전은 자신 있어요. 그래서 전 날 4시까지 술먹으면 못 일어날 것 같으니까, 아침 선전하려고 밤 새고 끝나고 어디에 짹박혔죠. 어쨌든 그러니까 몸에 배더라고요.

다른 예로는 박용진이 민노당 대변인을 했었어요. 출근을 4시 반에 해요. 이 사람의 노선이나 방향에 대해 우리가 할 말은 많죠. 그런데 우리가 붙으려면 최소한 이 사람이 하는 만큼 우리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있어요. 김문수, 이재오는 우리가 욱할게 많죠. 이재오는 유명한 이야기가 그 동네에 둘째아들 제대날짜까지 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소오름일 수도 있겠는데... 두번 세번 그러면... 어쨌든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이런 걸 하는거죠. 이재용도 그렇게 살아요. 우리가 편하게 산다고 욱하지만 자기의 부를 유지하기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럴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기본적인 부분들이 필요해요.

정리를 하자면 무엇을 해야 할까? 전 막대 구부리기라고 하죠. 그렇게 말하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선거에 나가고 당선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물론 뭐... 전 제 선배가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저런 개량주의자... 난 투쟁을 통해 세상을 뒤집을거야’ 이랬어요. 하지만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공존해야 한다고 봐요. 여러 축이 있어야 하고. 그런 걸 의회라는 공간, 정치라는 권한을 통해 하는 게 있어야 하는데 문제는 우리는 이런 축이 전무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경시하는 풍조까지도 있고. 바뀌기는 했지만. 그래서 전 젊은 활동가들이 적극적으로 선거에 대해 고민을 하고 구도 좋은 데서 스토리 만들면 성공할 수 있다고 봐요.

노무사와 활동가는 제 후배들 중에 어느 타이밍엔가 후배 아는 10명 중 8명은 노무사가 되었던 거라고요. 이게 가장 타협적인 거죠. 노동운동을 했었는데 확 취업하고 그러긴 걸리죠. 그런데 집에 이야기도 해야하고 뭐라도 해야 하니까 그 중간 지점을 찾다보니 다 노무사가 되는 거예요. 전 진보정당에서 활동하는 사람도 있고, 노조, 대중공간에서 활동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직장인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그 사이를 택하는 사람들만 너무 많아지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그 중간 지점이라고 할 까요? 활동가면 활동가, 선거면 선거 이럴 사람도 많아야 하는데 ‘나는 아니고’ 이런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무얼 할 것인가에 대해 야구를 중심으로 이야기하자면, 당원은 팬이고, 스탭은 프런트이고, 공직자는 선수죠. 프런트야구, 감독야구, 이런 이야기가 많지만 전 결국은 선수가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젊은 벼들’이 많은 고민을 했으면 해요.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정당은 선거에서 강해야 해요. 당선은 쉬어요. 다들 그렇게 당선인들이 이야기해요. 서울대 합격자들처럼. 국영수 위주로 풀었고, 계속 예복습했고, 8시간 잤다. 다 아는데 못하는 거죠. 그리고 젊은 미래들이 선거를 준비해야 노동당도 미래가 있다 라고 생각해요.

구도, 구도, 구도. 스토리, 스토리, 스토리. 이 2개가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공직자를 통해 시민들은 정당을 봐요. 이 진입장벽을 우리가 넘지 못하고 있는거고.  
노심이 이렇고 저렇고 해도, 왜 우리 김종철을 사람들이 몰라주는가는 당연한거예요. 공직자가 없으니까. 우리의 가치를 노동당의 이름으로 알리는데 몇 곱절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리더가 당선 되는 게 아니예요. 리더이기 때문에 당선되는 게 아니라 당선자 중에서 리더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드러나야 국민, 주민들이 보고 판단한다는 거죠. 꽤 괜찮은 진보 정치인이라고 보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물론 법적 테두리는 지키고. 당선이 되어서 내 보여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서 드러나서 리더가 되어진다는 거죠.

4년만 준비하면 기초의원은 구도와 스토리만 있으면 여기 있는 분들 중 절반은 당선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하죠. 만약 5년을 준비하면, 선거에서 떨어진 후에 재도전하면 100% 당선됩니다. 우리는 그만한 경험과 준비가 다 있고요. 제가 특별해서 된 게 아니예요. 출세하라는 게 아니라 진보정치의 밑알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선거에 도전하는 게 다 밑알이 되는 거예요. 다만 공부하고 준비하라는 거죠. 그거 없이 선거에 나가는 건 유권자에 대한 모독이고요. 우리 노동당의 가치와 진보정치의 가치를 같이 알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 <Q & A>

Q. 내년 총선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요?

A. 내년 선거 준비는 사실 늦었죠. 지금부터 뭘 할 수 있냐고 하면 재수하라고 밖에 할 말이 없어요.

Q. 그럼 지금 선거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과 같이 하려면?

A. 아까 말한 인지도를 높이는 게 필요하죠. 그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거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젊으면 젊은 층에 접근할 수 있는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 인지도를 높이는 데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싶고.

사실상 화끈하게 아주 뚜렷하게 선거에서 갑작스레 결합해서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아요. 그 지역에 꾸준히 해왔던 성과를 바탕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게 선거에 기반이 되는 거기 때문에 눈에 띄고 그런 게 인지도를 높이는 활동에 할 수 있고 그런게 많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Q. 바람잡이 역할을...

A. 최근 관악이 이슈였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 사는 사람을 거기 떨어뜨려놓으면 할 수 있는 게 사실 없죠. 해줄 수 있는 건 소리 크게 외쳐서 그 사람 인지도 높여주는 것뿐.

정말 할 수 없다는 건 아니예요. 계획을 세워서 잘 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